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지난날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지난날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지난날

완성된 이름

지난날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지난날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지나온 과거의 날. 또는 그런 날의 행적.

요약 연대표

표기	17세기	20세기	현대
다난날	-	-	-
나건날	-	-	-
지난날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지나온 과거의 날. 또는 그런 날의 행적.

문헌의 첫 기록

17세기

수록 용례

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9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지난날'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날. 또는 그런 날의 행적.



지난날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지난날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디난날 사전 표기 요약	—	—	●→	—	—	—
지난날 사전 표기 요약	—	—	—	—	—	●→
니건날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디난날
17세기
- 지난날
20세기현재
- 니건날
17세기

ㄷ 지난날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ㄷ 옛 표기와 변화

현대 국어 ‘지난날’의 옛말인 ‘디난날’은 17세기부터 나타난다.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ㄷ, ㅌ’이 ‘ㄴ,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20세기에 ‘지난날’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지난날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7세기 니건날, 디난날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니건날, 디난날

📖 출처 1632 가례언해 6:1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죽으니는 디난날을 與하다 하니.

📖 현대어 풀이

죽은 이는 지난날을 함께한다 하니.

📖 대응 원문

死與往日.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지난날

출처 1921 동아일보 11월 10일 3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이 사실로 지난날에 해주 지방 법원에서 일년 이상 삼년 이하의 판결 언도를 불복하고 평양 복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는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3 동아일보 8월 26일 1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영희에게 대하여 반갑고 김분 것은 지난날의 정량을 생각해 하는 모든 것이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8 조선일보 4월19일 3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그들은 지난날을 붓그리엿다 말하엿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지난날에 관한 주석

한편 17세기에 지난날의 의미로 ‘니건날’이 쓰였다. ‘니건날’은 가다의 의미인 ‘니-’에 선어말 어미 ‘-거-’와 관형사형 어미 ‘-ㄴ’, 명사 ‘날’이 결합한 것이다. 17세기경 ‘니건날’과 ‘디난날’이 함께 쓰이다가 ‘니건날’은 점차 쓰이지 않게 되어 지난날을 뜻하는 어휘는 ‘디난날’만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예] 니건나랜 돈 쓰를 아롬더 디릴 잡더니(往日用錢捉私鑄) [현대어 역] 지난날엔 돈을 쓰에, 사사로이 주조하는 사람을 잡더니



지난날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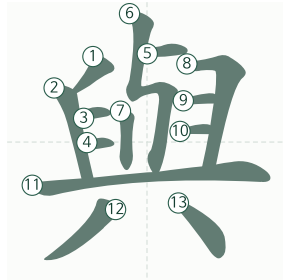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지난날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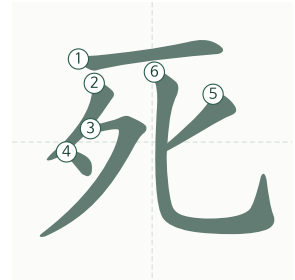
與 뜻·음 더불·줄 여
총 14획 · 부수 亠



사전 14획 · 획순 그림 13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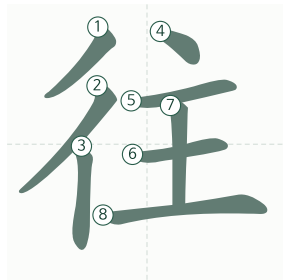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與/

死 뜻·음 죽을 사
총 6획 · 부수 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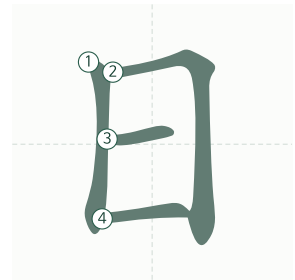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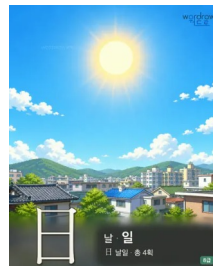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死/

往 뜻·음 갈 왕
총 8획 · 부수 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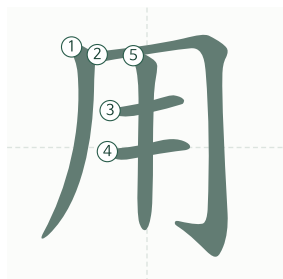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往/

日 뜻·음 날 일
총 4획 · 부수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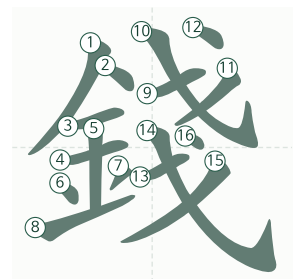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日/

用 뜻·음 쓸 용
총 5획 · 부수 用



hanja.wordrow.kr/한자/用/

錢 뜻·음 돈 전
총 16획 · 부수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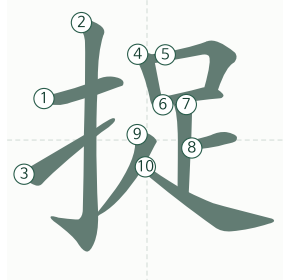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錢/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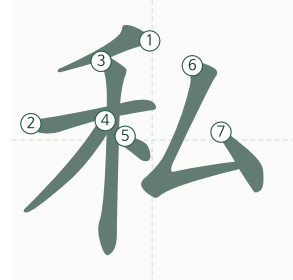
뜻·음 잡을 착
총 10획 · 부수 手



hanja.wordrow.kr/한자/捉/

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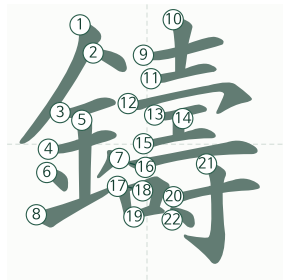
뜻·음 사사(私事) 사
총 7획 · 부수 禾



hanja.wordrow.kr/한자/私/

鑄

뜻·음 쇠불릴 주
총 22획 · 부수 金



hanja.wordrow.kr/한자/鑄/